



파머 성전장(중앙)과 1보좌 이 준택 형제(왼쪽), 2보좌 박 남수 형제(오른쪽)

새로운 서울 성전장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의 지시하에 한국 서울 성전의 새로운 성전장단이 조직되었다.

북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를 역임한 이 준택 형제가 스펜서 제이 파머 성전장의 제1보좌로 부름받고 성별되었으며, 성전 선교사인 박 남수 형제가 제2보좌가 되었다.

한국에서 성전 사업이 새로이 시작된 것에 언급하여, 파머 성전장은 새로운 보좌들의 합당성과 영성과 헌신에 대하여, 그리고 막 끝난 첫 삼 년 동안 한국의 말일성도들이 성전의 성약과 의식에 관심을 보여준 충실함을 크게 칭찬하였다.

“파머 자매와 함께 이곳 성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집에서 복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보여 주는 경건성과 정확성과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967년에 미래의 성전 부지를 위해 구입한 그 당시의 별거벗은 땅을 회상해 볼 때,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는 특권을 갖게 되며, 이처럼 많은 교회 회원들과 침례와 엔다우먼트와 결혼 인봉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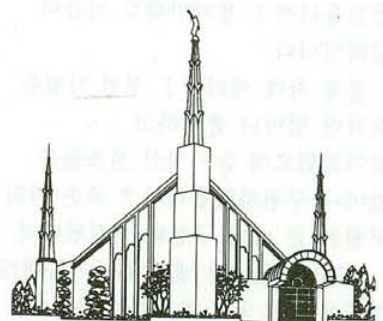
파머 성전장은 첫 삼 년 동안, 슬로버 성전장 부처와 성전 선교사들과 한반도 전역과 도서 지방의 회원을 포함하여 개척자와 같은 많은 의식 봉사자들이 주님의 집의 제단에 시간과 재물을 바쳐, 산 자와 세상을 떠난 친지와 친척들에게 승영과 행복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행한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 서울 성전은 1985년 12월에 의식 참여자들에게 처음으로 열렸다. 그 이후로 많은 가족들이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함께 인봉되었다. 성전 사업에 대한 인상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자가 줄을 이었으며 스테이크와 선교부에서 또한 성인과 젊은이들이 다 참여하였다. 이 해만 해도 9월말 현재 15,000건의 엔다우먼트 의식이 성인들에 의해 집행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권고의 말씀대로, 모든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충실한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은 수는 증가되고 있다.

파머 성전장은 다가오는 해는 한국 교회의 회원들에게 새로운 전환기, 즉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며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씀하였다.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며 도움을 얻도록 해야 한다. *



서울 성전

편집자 주 : 이번 호에서는 서울 성전 건립 3주년을 맞이하여 성전 특집을 마련하였다. 지면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좀더 면밀히 다루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사 수집을 위해 동분 서주한 기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봉사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느낌이 전달되기 바란다.

계보 사업의 중요성



허 채 형제(전 성전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던 성전이 서울에 세워진지도 벌써 삼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성전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 의식이 꾸준히 집행되었으며 현재에도 주님의 사업을 엄숙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전에서의 의식 집행으로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생각만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전 사업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고 참여하였으며 돌아가신 선조들을 얼마나 구원하였습니까? 죽은 자의 구원은 곧 나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1836년 4월 3일 엘리야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여

미래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교성 110 : 13~16 참조)

창조전 창조주께서는 창조와 더불어 주님의 섭리인 구원 사업을 미리 마련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욥기 38장 4~6절,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 128장 5절에서 '너희는 이 기록에 관한 순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여길지 모르나 이는 다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창세 이전에 제정하시고 준비하신 의식과 준비에 순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임을 일러두노라'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 기록서 작성 요령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가족 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아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죽은 조상의 구원의식, 즉 대리의식을 마치신 분들은 가슴이 뿌듯하리라 생각됩니다.

직계 가족의 대리의식이 끝났으면 외가의 것을, 그 다음은 친족순으로 계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가족 기록서를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빨리 서둘러 조상들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름답고 웅장한 서울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손짓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대리의식은 누구를 위한 구원 사업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들을 위한 구원 사업입니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계보 사업을 하십시오. 더 열심히 조상을 위한 대리 의식에 참여하십시오.

조상의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은 각자에게 참다운 기쁨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성전사업을 통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성명 처리

이 명칭은 예전의 '한국 계보 사업 센터'가 1987년 9월에 바뀌어진 지금의 이름이며 한국 서울 성전의 한 부서를 일컫는 말이다.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회원들이 자신의 조상을 위해 가족 역사 기록(가족 기록서)을 제출하면 그 기록에 나타나있는 돌아가신 분들이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업무 중 회원들이 알고 있어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설명하고 싶다.

회원이 한장의 가족 역사 기록(가족 기록서)이라도 제출하면 '접수 통보서'가 제출한 기록서에 나타난 주소로 발송된다. 이 통보서를 받아야 기록서가 성전에 접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 이 기록들은 의식받을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철에 보관된다. 이것은 먼저 제출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기에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다. 순서가 되면 대기철에서 꺼내 의식을 받도록 준비를 하게 되고 준비가 끝나면 가족 제출자에게 '가족 기록서 처리 상황 통보(1차 통보서)'와 제출했던 가족 역사 기록(가족 기록서)의 사본을 함께 발송하여 의식 받을 준비가 끝났음을 통보한다. 이때에 의식 처리가 '가족철'로 준비되어 있다면 준비된 사람들의 의식을 6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성전과 접촉을 해야 한다. 제출자가 연락없이 이 기간안에 의식을 수행하지 않으면 성전에서는 임의로 처리하게 된다. 또 성전철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의식이 끝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된다.

시간이 흘러 모든 의식이 끝나면 '2차 통보서'를 의식 카드의 사본과

함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의식이 끝났음을 알려 드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제출한 조상의 의식 처리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 통보서를 받게 되면 기록 제출자는 조상에 대한 필요한 의식이 빠짐없이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현재 성명 처리 부서에 접수되고 있는 가족 역사 기록은 1988년에 들어서도 매월 약 4~500장의 기록만이 접수되고 있어 가족 역사 기록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회원들이 제출하는 가족 역사 기록의 많은 양이 부정확하며 참고 자료를 보고 대충 무성의하게 옮겨적은 기록을 제출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의 이름이 의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성전에 여자 이름이 없다'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회원 모두가 조상을 위해 더욱 많은 역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기록 방법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부탁하여 기록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느니 보다는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자신의 조상에 관한 기록은 자신이나 가족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조상, 집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나 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록서는 모든 의식이 끝나면 마이크로 필름에 촬영되어 화강암 동굴 기록 보관소에 영원히 보관되는 데 그곳에 보관되는 기록이 자신의 필체로 남는다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이고 해볼만한 일일겠는가!

회원 모두가 해당 워드/지부의 가족 역사 상담자와 상담하여 해결하거나 스테이크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위의 경우가 불가능하면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를 통해 스스로가 탐구하고 조언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다.

1. 국립 중앙 도서관내의 '계보학 자료실'(서초동 소재)
전화 : 535-4142
2. 정독 도서관내의 '한국 족보 자료실'(구 경기도 자리)
전화 : 734-5365
3. 서울 대학교내의 규장각
전화 : 886-0101(교)3709
4. 전북 대학교내의 중앙 도서관(전북 전주시)
전화 : 70-3461
5.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성남시 판교) 전화 : 234-8111
6. 학술 단체, 대한 민국 족보 학회
전화 : 923-7608
7. 한국 족보 도서관(서울)
전화 : 744-2474

이외에도 각 향토 단체나 대학 도서관등을 들을 수 있겠다.*

- (주) 1. 한국에서 제일 많은 족보를 소장하고 있음.
2, 3. 족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1에 없는 기록이 있음
4. 대학 도서관으로는 제일 많은 족보를 소장하고 있음
5.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이곳을 가는 업무용 버스는 세종 문화 회관 뒷쪽의 전신 전화국 자리에서 10:50, 14:20, 15:20분에 출발하며 연구원에서는 10:10, 13:30, 14:30분에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있다.
6. 각 종친회의 소재를 알 수 있다.
7. 이곳을 이용할 때는 금전적인 지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 황 규형 형제(성전 성명 처리 부서 책임자)

성신의 인도로 만난 어머니



이문 지부 윤 금옥 자매

이 날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딸을 출가시키고 아들을 먼 타국땅에 보내 허전했던 마음을 성전을 방문하고 성찬식을 위해 약수물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는 등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삶의 기쁨과 위안을 얻고 있었다.

서울 성전에서 보낸 2년은 많은 아름다운 영적인 경험을 가져다 준 기간이었다.

대리 의식에 자주 참여하며 이제 우리 가족도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관계기관에서 호적등본을 떼고 기록을 시작했다. 처음 4대까지의 계보 사업은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10개월만에 부모님과 형제들의 의식이 집행되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향했다. 가족을 구원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들뜨고 긴장되었다.

28년 전 부모님과 동생들을 장티푸스로 하루아침에 잃게 되던 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서울 구경도 못시켜 드렸던 것이 새삼 가슴이 아프고 떨렸다.

오후 6시 30분이 되어 침례실로 향했다. 종종 대리 침례를 받았지만

이날은 초조한 마음과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침례식이 집행되기 전 설레이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윤자매를 사랑하셔서 성전에 오게 해 주시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며 성신이 어느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분이 내게 인도되었을 때 흰옷의 광채와 놀라움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무언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눈을 깜빡여 보았지만 그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작은 소리로 “어머니”라고 외쳤다. 그것은 천둥소리와 같이 나의 마음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편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계셨고 28년 전 모습보다 더 늙지도 젊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그분과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린 서로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해의 왕국 쪽을 향해 사라졌다.

주님의 사업을 대신하며 의심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함을 더욱 명백히 해 주었다.

성전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구한다. *

감격과 환희의 궁전

김 광오 형제(성전 의식 봉사자)

19 86년 4월 8일 성전 봉사자로 부름받아 빠짐없이 2년 6개월을 봉사하면서 깨우친 만나의 부스르기 가운데 몇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성전의 용단을 밟으며 갱의실에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을 때면 머리위에서 돌아가는 환풍기의 바람 소리에서 합창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겠지 하고 흘려보냈지만 그럴수록 더욱 웅장한 화음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웅대한 원형 극장과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에서 수천 수만의 합창단의 영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높고 낮음과 힘차고 빠르고 부드러움이 잘 조화된 영광을 찬양하는 성가라고 느껴졌습니다. 영이 하늘 궁전에서 오늘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준비 모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1987년 5월 26일 나는 새벽 의식을 마치고 우리 직계 조상들을 위한 인봉 의식을 끝냈습니다. 나는 재회와 승영의 환희로움에 흥분되어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의식복 대여실 건너편에 걸려있는 벽화의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에서 검붉은 핏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뼈마디 마디가 오싹하는 두려움과 전율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오야! 너는 너의 선조들만 끝낸 것으로 만족하느냐? 이 땅의 수많은 조상들이 구속해 주길 밤낮으로 호소하는데 너는 못들은척 할 것이냐” 이러한 성령의 속삭임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일주일여 두 번 의식 봉사자로 만족하지 말고 참여를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그 다음 날로부터 시작하여 '87년에 70명을 대리하여 하늘 나라에 지부를 조직했고 '88년엔 90명을 계획, 80명을 돌과했습니다. 꼭 와드로 승격시키리라는 꿈을 불태우며 성전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성전에서 맺어주고 봉하고 기록하고 집행되는 모든

의식이 하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의 인봉 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던 1987년 가을, 어느날 새벽 엔다우먼트 의식을 집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증인들 앞에서”라는 말씀에 강한 감동을 받아 이해력이 열렸습니다. 의식실 천정에서 하얀 빛줄기가 하늘로 솟구치더니 찬란한 하늘 궁전이 보였습니다. 세계의 성전이 이곳에 모여 땅과 하늘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이 굳게 맺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봉사자와 천사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받고있는 한국 선조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통과했을 때의 감격과 환희는 황홀함의 극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겸손히 성전 봉사자와 참여자로서 이 위대한 대업에 헌신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저희도 부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 용태 형제는 1972년 10월 25일에 개종한 진실된 말일성도이며 장 정애 자매는 그의 부인으로서 1973년 4월 25일에 개종한 친절한 말일성도이다.

예수 여덟인 조형제는 47세 때부터 고혈압으로 인해 신체의 반을 쓰지

못하게 되어 행보도 쉽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지부서기, 주일학교 회장, 지부장단, 감독(목포와드)의 부름을 10여년 동안 마다않고 봉사해 온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인봉 의식을 고대하며 살아왔다.

예수 여섯인 장자매와 45년째 결혼 생활을 함께 하고있는 조형제는 아주 밝고, 깨끗한 눈빛의 소유자이며, 입언저리엔 늘 웃음주름살이 없어지지 않았다. 남다른 몸으로도 조형제는 매주 수요일 오후 한시 삼십분에 성전을 꼭 찾는다. 그의 부인도 물론 함께이다.

서울 성전이 있기 전에 하와이 성전으로 부부 인봉을 받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였다가 서울에 성전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오랫동안 불편한 몸을 갖고 있었으므로 언제나 자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는지... 조형제는 성전 인봉에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아내에게 별로 해 준것이 없으며 내 책임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하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내 책임을 다른 곳에서 이런 남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의 남편으로 아내에 대한 남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지만 장자매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몇 해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담석증을 앓고 있었으며, 당뇨질환까지 겹쳐 많은 고생을 하였다.

조형제 부부는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먹고 살거나 다른 걱정이야 뭐 있겠습니까. 그저 어떻게 식구를 개종시킬지가 가장 큰 걱정이지요. 세상에 대한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수요일과 일요일이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죠” 좌석버스 70번을 타면 바로 성전에

갈 수 있는데 그 노선을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전에는 오후 여섯 시의 성전 의식 뿐이었던 것이 이제는 귀가 길에 밝은 한시 삼십분에 시작되는 의식 시간이 마련되어 여간 기쁘지 않다고 한다.

장자매는 수술을 받은지 일년이 조금 지나 조형제와 영원한 동반자의 자격으로 부부 선교사를 신청하던 날 이상스럽게도 몸안의 질병들이 깨끗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조형제 부부는 부부 선교사의 봉사는 하지 못하였으나 영원한 부부로서 완전한 신체를 선물받게 되는 영의 세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부부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

(주)조형제 부부는 현재 서울 영동 스테이크 마천 지부 소속이며, 조형제는 대제사 그룹장으로 장자매는 상호부조회 교사와 지부 도서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취재 : 유 장철 기자



목포 와드 정원에서 조 용태 형제 부부

새로운 서울 지역 대표 고 원용 장로



1988년 10월 30일, 공보 위원회에서 봉사하던 고 원용 형제가 서울 지역 대표로 부름받았다.

고 원용 지역 대표는 1962년 3월 14일에 침례를 받고 1978년 4월 김 은희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 후 삼청 와드 감독단에서

봉사하였으며 '79년 4월부터 '85년 3월까지의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하였다.

청소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그는 서울 공대 전기과에 수석 합격하였고 1973년 6월 IBM에 입사하였다. 그래서 한동안('85년 3월부터 '86년 11월까지)은 IBM 동남 아시아 본부장으로 홍콩에 체류하기도 했다.

현재는 강서 스테이크 강서 와드 소속이며 자매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새롭게 지역 대표로 부름받은 고 원용 형제는 그의 오랜 신앙 생활속에서,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다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며 그의 신앙 철학을 말한다. *

후반기 동 스테이크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는 10월 29, 30일 일간 미아 와드에서 아시아 지역 회장인 스미스 장로가 함께 한 가운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모든 신권 지도자와 회원은 2명의 비활동 회원을 앞으로 52주 이내에 활동 회원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모든 회원은 증가되는 비활동 회원의 숫자에 심각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본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여 앞으로 52주 내에

꼭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본 대회에서 서울 지역 대표로 수고하던 김 창선 형제와 동 스테이크 부장인 김 병희 형제가 해임되었다.

새로운 동 스테이크 부장에 구 본동 형제가 부름받았으며 그의 1보좌에 최 동일 형제, 2보좌에 이 우영 형제가 각각 부름받아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단이 조직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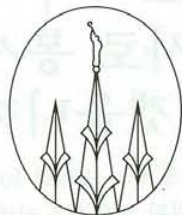
강릉 지방부 대회

지난 4월 지방부 조직 후 처음으로 하반기 강릉 지방부 대회가 신 호범 서울 선교부장의 감리로 10월 23일 강릉 지부에서 열렸다.

교리와 성약 88편 81절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라는 주제 말씀에서 신 호범 선교부장은 선교 사업의 필요성과 미국 생활에서의 간증, 소련 방문시의 간증으로 많은 회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정 민호 부장도 지난 4월 대회 이후 6개월만에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자신의 선교사 시절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회상하며 간증을 전해 주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배 영철 지방 부장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전 인류의 1%에 해당하는 우리는 나머지 99%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그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자고 말씀했다. 이 모임은 약 190명이 참석하였으며 3명이 장로신권을 받았다. *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8:81)

강서 스테이크 체육대회

지난 10월 3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백석 중학교의 넓은 운동장에는 강서 스테이크 10개 와드/지부 회원 3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88년 가을 체육대회가 열렸다.

화려한 피켓걸을 앞세운 지부, 로마 병정의 용맹스런 복장을 한 와드, 산뜻한 운동복 차림의 와드 등 각종 응원기들을 앞세우고 입장하는 그들은 역시 올림픽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화려한 모습으로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5개 와드/지부씩 묶어서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진행한 경기는 일방적인 경쟁만이 아닌, 와드/지부간에 화합과 우정을 함께하는 좋은 자리였다. 배구, 축구, 족구, 기마전, 줄다리기 등의 단체 경기와 육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행된 단축 마라톤으로 종합 순위를 결정했다.

1등은 신정 지부, 2등과 3등은 각각 영등포 지부와 화곡 와드가 차지했다. *

기사 제공: 장 동민 기자



개회식에 모인 강서 스테이크 회원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96기 수료

(1988. 10. 17~26)

한 재국 장로(역곡 지부) 대전 선교부
주 란 자매(부평 와드) 대전 선교부
안 국희 자매(독산 지부) 대전 선교부
김 승자 자매(주안 와드) 대전 선교부
윤 재경 자매(성남 중앙 지부) 대전 선교부
김 재영 장로(영도 와드) 서울 선교부
강 광진 장로(송정 지부) 서울 선교부
이 혜자 자매(김해 지부) 서울 선교부
이 은주 자매(포항 지부) 서울 선교부

김 정희 자매(중리 와드) 서울 선교부
김 문정 자매(신월 지부) 서울 선교부
김 은희 자매(목포 와드) 서울 선교부
전 인숙 자매(경주 지부) 서울 선교부
최 민규 장로(신길 와드) 부산 선교부

최 동식 장로(원주 지부) 부산 선교부
김 경란 자매(춘천 와드) 부산 선교부
천 민숙 자매(원주 지부) 부산 선교부
김 양동 장로(용현 와드) 부산 선교부
이 승준 장로(영도 와드) 서울 서 선교부 *



파머 성전장과 함께 한 선교사들

푸른 제복의 신앙



김 도균 형제

쓸 쓸하게만 느껴지며 가슴 속 깊이 눈물짓는 어머님의 모습.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흔드시던 그 모습이 아득하기만한 데 벌써 가슴과 머리 위엔 노란 막대기 네 개가 자리 잡아 바느질한 부분이 조금씩 틀어져 갓 물 병장의 수모를 면한 지금.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흐르는 땀을 닦지 못해 고개돌리며 어깨를 훔던 나의 얼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을 깨물었던 순간, 자신과 자신을 채찍하며 견디고자 노력했던 시간들을 사랑한다.

훈련소 시절, 그 피곤하던 훈련 가운데 10여 분 간의 휴식시간을 동료들은 담배를 나눠 물고 그 연기 속에서 훈련의 피로를 씻은 채 이야기의 꽃을 피우지만 난 담배가 맛 있다는 동료들의 부추김보다 가슴 포켓에 꽂힌 조그마한 성서를 대하며 그들보다 더 큰 영적인 단맛을 경전의 한 귀절에서 느끼고 훈련의 피로를 풀었다.

훈련소 2주가 지난 일요일 아침에 조교 한 명이 세상에 있는 각종 교회들을 하나 하나 대면서 ‘천주교’ ‘기독교’ ‘감리교’ ‘안식교’ ‘장로교’ 등등을 말했다. 나는 속으로 말일성도는 언제 나오려나 가슴 조이며 기다리는 데 “이 외 다른 종교 없나? 혹시 여기 물론 있나?” 하는 것이었다. 이 때,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 62번 훈련병 김 도균” 이라고 외치자 모두의 시선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때까지만해도 경전이라곤 포켓용 신약성서 하나로 나의 굶주린 영을 채우며 기뻐하였는데 그 조교는 나에게 물몬경과 각종 소책자를 선물이라며 건네주는 것이었다. “조교님 이 물몬경은 제가 자대 배치 받으면 얼마든지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니 두고 읽어 보십시오”라고 하였지만 그 조교는 막무가내로 명령이라며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선교사를 만나서 공부하였고 침례를 받으려 하였지만 그 때가 휴가 기간이라서 못 받았으며 자신은 경전을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 필요 없다며 건네주던 그 조교의 엄하지만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그리하여 항상 방편을 마련한다는 니파이의 간증처럼 난 조그마한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한 배려를 항상 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 물몬경을 붙잡고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는지 모른다.

넓은 대지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이마의 땀방울이 나의 안경을 적셔 먼지와 합쳐져 세상이 뿌옇게 보일때마다 청남 시절 15-16반 교재에 시련과 역경을 통해 발전한다는 값진 진리를 몸소 체험하며 포켓속의 경전을 꺼내든다. 물에 젖고, 말리기를 여러 차례, 이제는 처음보다 두 배나 두꺼워진 경전을 쳐다보며 ‘나의 신앙도 처음보다 이 만큼이나 두터워졌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희미한 후래쉬 불야전의 텐트 안 한 구절의 경전은 영하 이십여 도의 강 추위에도 나의 언 마음과 몸을 녹이기에 충분하였고 그래도 불이 없어 읽지 못하는 날에는 경전을 붙잡고 기도한다. 텐트 안에 물이 고여 등을 적시고 물방울이 하나 둘 나의 얼굴을 적셔

한기를 느낄 때도 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야전의 컴컴한 텐트 안에서 한 손에 경전을 들고 후래쉬를 의지하던 그 빛은 신앙이요, 경전은 쇠막대리라. 막대기를 비출 수 있는 강한 빛이 필요하다. 항상 강한 밧데리를 가지고 있어 강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경전을 항상 읽어야 한다는 막대기와 후래쉬는 상호비례하여 발전한다는 진리를 배웠다. 강한 빛을 지니기 위해 경전을 읽자고...

선교사 시절의 경험은 나의 영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 푸른 제복 안의 경험은 나의 육을 단련 시켜 영과 육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분의 계획된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

진정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존재는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양심과 환경과 신앙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하시지 않던가? 난 이 푸른 제복의 시간을 사랑할 수 있고 이곳의 경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수 많은 간증을 얻고 배웠다. 나의 신앙의 디딤돌이 될 이 곳.

수 많은 청남과 독신들이 나의 자리를 지나칠 때 그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할 것이고 지금 나와 같은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져 복음의 진실됨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강하게 갖고 느낄 것이다.

이제는 닳고 닳아 희미하게 보이기만 하는 나의 가슴에 걸려있는 인식표의 글자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입니다”라는 이 글귀가 나의 마음 속에 파묻혀 조금 더 함당하고 강한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린 행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음을 간증한다.*